

임실N치즈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쾌거... 소비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

임실군의 대표 브랜드인 '임실N치즈'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시상식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으로 당당히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 시장, 군수들과 기업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실군은 5년 연속 수상의 금자탑을 세웠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는 동아닷컴, 한경닷컴, MBC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선정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파악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임실군의 치즈산업은 50여 농가, 4,000여두의 젖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기반으로 임실치즈농협을 비롯한 13개소의 목장형 유가공 업체에서 1등급의 신선한 원유를 활용해 한국인



임실군의 대표 브랜드인 '임실N치즈'가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치즈와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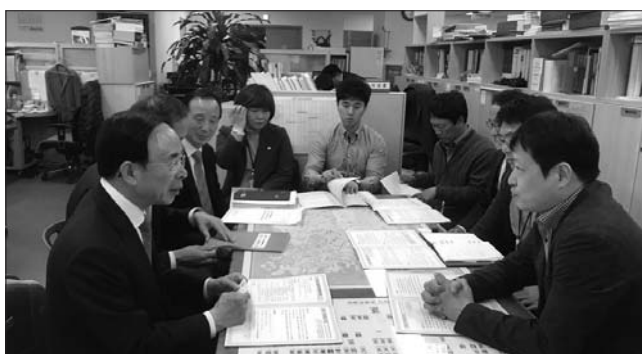
또한 스위스 아펜젤을 모델로 조성되어 이국적 풍경이 펼쳐진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인 임실치즈마을은 유료 치즈체험관광객이 연간 3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임실N치즈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힘써준 공을 세우고 있는 임실N치즈축제는 해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도 임실N치즈를 테마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쟁걸음'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심 민 임실군수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쟁걸음을 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쟁걸음을 하고 있다.

심 군수는 민선 6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중앙부처를 일일이 방문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24일 심 군수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4월이 중앙부처 예산 한도액이 결정되고 부처별 실국 예산 편성 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일정을 별도로 잡는 등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임실군 주요 최대 현안인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선을 위한 섬진강변 주변지역 교통환경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착수를 시작했다.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섬진강변 건설 당시 도로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반세기 동안 주민들의 교통난점에 따른 불편과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섬진강변 주변지역 교통환경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착수를 시작했다.

이어 농림부 김중훈 차관보를 방문하여, 성수면과 관촌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의 상호협력 기반마련을 위한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사1촌 자매결연 행사

남원시 산동면 - 천하제일사료, 장학금 전달 등

남원시 산동면은 지난 22일 천하제일사료(익산)와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를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전개했다.

천하제일사료와는 2013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기업은 산동면의 특산품을 구매하고 면은 결연 기업의 제품을 구매 홍보하며 서로 상생하면서 올해로 6년째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50여명이 참여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일요일 아침 밝은 얼굴로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린 참여자들은 사전 행사로 먼저 산동면 부절리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따기 체험을 1시간 30여분정도 진행하고 농가에서는 딸기잼을 전달했다.

면사무소에 준비된 행사장으로 이동하여 산동면에 거주하는 모범 학생 3명에게 장학금 전달 등

간단한 기념식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농가에서 제공한 삼겹살로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고소압 유원지에서 분청취를 만끽하며 조금차갑지만 맑은 요천에 발을 담고 다슬기를 잡고 물고기 잡기 놀이를 하며 바쁜 일상과 도시의 답답함을 털어내었다.

자매결연 기업 천하제일사료 선양선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하며 농촌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서명원 발전협의회장은 "올해도 변화없는 유대감으로 교류행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면을 찾은 도시인들이 농촌체험을 통해 푸근한 농촌의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고 그 인연이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곡우가 지난 요즘 농촌 들녘에서는 논타작물 재배 농자재 준비와 밭작물 파종작업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는 24일 올해를 농기계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밭벗고 나섰다. 남원시는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영농철 농기계 사용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금년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운행이 잦은 농기계를 대상으로 안전동화장치 부착이 없거나 노후화된 농기계 302대에 대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안전동화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안전동화장치 부착은 야간에 농촌에 농기계 운전자들에게 농기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두뇌넉년 인지훈련 운영

순창군은 어르신들의 뇌 운동을 활성화할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의문동 두뇌넉년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0명의 치매 고 위험자를 대상으로 '뇌운동 두뇌넉년'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이용한 단계별 맞춤프로그램을 사용해 광범위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 완화하고 일상생활활동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 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 '탄력'

순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이 최근 전라북도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고 있다.

24일 순창군에 따르면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은 1지구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과 2지구 온천개발지구 및 수체협센터로 나누어 추진한다.

강천산 군립공원 부근 팔덕면 청계리 산11번지 일원 15만1천500㎡ 규모로 추진되며,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494억원을 투입해 전체 97개 객실의 관광호텔, 보양온천, 펜션, 수체협센터, 동굴형체험관, 온천관광정원, 산책로, 야영장 등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지구인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며 민간사업자가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주)강천파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마쳤다. 현재는 순창군이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부지매각을 농어촌공사가 진행중이며,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지구인 강천 온천개발지구는 순창군이 추진하며 수(水)체협센터, 대

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굴형체험관과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는 일반상가, 주차장 및 문화체험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와 관련 순창군은 최근 수체협센터와 동굴형 체험관 건립사업을 본격 착공하면서 강천 온천개발지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체협 센터는 음용 온천수 등 자원을 활용해 예방 차원의 다양한 건강 체험프로그램을 관광화 하는 사업이다. 90억원을 투자해 온천 치유 누리실, 스파체험실, 테라피실과 온천관광장, 족욕장 야외풀, 족욕 산책로 등이 들어서며,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동굴형체험관은 24억원을 투자해 동굴이라는 독특한 공간형태를 활용 순창 온천수의 신비감을 부각시킨다. 치유의 샘, 게르마늄 치유공간, 족욕장 등이 들어서며, 내부에 안개 분수는 물론 천정에 경관 조명등을 설치해 동굴의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 강천산 주변 관광자원화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온천수를 활용한 치유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한국초등학교테니스연맹(회장 라귀현)주최하고 전북테니스협회(회장 정희균)주관하는 제22회 한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이하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가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순창군 일원에서 뜨거운 열정에 들어간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1급 대회로 모두 140개팀(남자 75팀, 여자 65팀)에서 600여명의 선수와 임원, 지도자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다.

5월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초전으로 전력분석을 위해 시·도 체육관계자들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